

아베츠의 기도 재고(再考)

김선종*

들어가는 말

아베츠의 기도(대상 4:9-10)는 구약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기도 가운데 하나이다.¹⁾ 어머니가 고통 속에서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아베츠(고통)라고 지었지만, 아베츠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아베츠가 하나님께 구한 복의 내용은 자기 땅의 경계를 넓혀 주고, 자기를 보호해 주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 기도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힘과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상의 전거를 마련해 준다.²⁾

많은 신앙인들이 아베츠의 기도를 알고 있지만, 정작 그들 가운데

* 호남신학대학교, 구약학

- 1) 이 글에서는 우리말 성경이 음역하는 ‘아베스’를 히브리어 음가에 따라 ‘아베츠’(אָבֶצֶט)로 옮긴다. 예언자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로 음역되어 예언자 아모스(אַמּוֹס)와 혼동을 일으키지만, 실제로 그의 이름이 ‘아모츠’인 것과 마찬가지로, ‘아베스’에 대한 적절한 음역은 ‘아베츠’이다.
- 2) 이러한 주제를 위해서는 정대웅, 『아베스 가족의 비밀』 (서울: 쿤란, 2007); 찰스 스펀전, 『아베스의 기도』, 유재덕 역 (서울: 브니엘, 2009); 송삼용, 『아베스의 영성』 (서울: 브니엘, 2008); 해럴드 스미스, 『아베스의 축복원리: 당신은 거룩한 축복을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을 보라.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가 어느 책에 나오는지 모른다. 이 기도가 기도의 책인 시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서 가운데 하나인 역대기에 들어있고, 더 나아가 역대상 1-9장의 족보의 단락 가운데 뜬금없이 나타나 본문의 흐름을 끊으며, 유다의 족보(대상 4:1-10) 안에 아베츠가 나타나지만 정작 그의 족보는 분명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면 놀랄 것이다. 피상적으로 볼 때, 아베츠의 기도를 담고 있는 역대상 4장 9-10절의 두 구절은 이 본문이 속한 단락이나, 더 나아가 역대기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피상적인 이해에 비하여 아베츠의 기도는 구약에 나오는 다른 그 누구의 기도보다 대중적인 기도가 된 것이 흥미롭다. 단적인 예로, 브루스 윌킨슨(B. Wilkinson)의 『아베스의 기도』는 미국과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신앙 서적 가운데 하나이다.³⁾ 그러나 윌킨슨은 아베츠가 드린 기도를 단지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으로 제한시킨 큰 약점을 보인다. 그는 아베츠가 넓혀 달라고 기도한 ‘땅의 경계’를 ‘하나님을 위한 더 많은 사역의 기회와 영향력’으로 해석한다.⁴⁾ 이러한 해석이 생겨나게 된 것은 아베츠의 기도의 단락이 속한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역대기의 신학과 별개로 이 기도문을 따로 떼어내서 읽기 때문이다. 그러할 경우 이 기도문이 역대기에서 가지고 있는 신학의 의미와 역대기가 기록된 시대의 배경과 상관없는 자의적인 해석을 낳을 위험성이 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는 했지만,⁵⁾ 아베츠의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인의 이해를 뒤바꾸어 놓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3) B. H. Wilkinson, *The Prayer of Jabez: Breaking Through to the Blessed Life*(Sisters, Oregon: Multnomah Publishers, 2000). 우리말 번역을 위해서는 브루스 윌킨슨, 『아베스의 기도: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마영례 역(서울: 디모데, 2001)을 보라.

4) 브루스 윌킨슨, 『아베스의 기도』, 129.

5) R. W. Klein, *1 Chronicles: a Commentary*, Hermeneia(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6), 133; 정대웅, 『아베스 가족의 비밀』, (서울: 쿤란, 2007).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아베츠의 기도 본문을 우리말로 옮기고, 이 기도의 의미와 기능을 본문의 흐름과 짜임새에 따라 분석한 다음에, 역대기의 배경 안에서, 특별히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신학 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할 경우 아베츠의 기도에 대한 개인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이해를 넘어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귀환 공동체에 주어지는 공동체적이고 신학적인 해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본문 시역 및 본문의 흐름과 짜임새

1.1. 우리말로 옮긴 본문과 해설

성경을 비롯한 고대 본문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원칙에는 크게 ‘형식 일치’의 원칙과 ‘내용 동등성’의 원칙이 있다. 첫째 원칙은 원문의 형식을 중요시하여 번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직역으로 알려진 번역 원칙이다. 이 원칙은 원어의 문장 형식을 존중하는 점에서 원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번역어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때로는 번역된 본문이 현대의 언어에 어색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둘째 원칙은 독자들의 언어를 존중하여 번역하는 방식으로, 아무래도 형식 일치의 원칙보다 자유로운 의역에 가까운 번역을 낳는 경향이 있다. 원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오늘날 독자들에게 쉽게 옮기는 장점은 있지만, 번역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전제가 투영될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⁶⁾

6) 번역 원칙의 고전적 연구와 여러 현대 번역 원칙을 위해서는 E. A. Nida and Ch. R.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Help for Translators* 8(Leiden: Brill, 1982); 왕대일, “번역 속의 주석, 그 가능성과 한계 -내용 동등성 번역의 경우-,” 『성경원문연구』 16(2005), 62-78; 박성희, “현대 번역학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24 (2009), 157-179를 보라.

아베츠의 기도 본문도 이를 피할 수 없는데, 아래에서는 히브리 원문을 그 구문에 따라 충실하게 번역함으로써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를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 글은 아베츠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의미를 히브리 본문에 비추어 해석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원문이 지니고 있는 형식과 의미를 존중하여 가능한 한 원문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9 아베츠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 받았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아베츠로 부르며 말했다.

“참으로 내가 고통스럽게 낳았다.”⁹

10 아베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말했다.

“만일 당신이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저의 시지경을 넓히시고, 당신의 손이 저와 함께 있으며, 악에서 제가 고통당하지 않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베츠가 구한 것을 이루어주셨다.

ㄱ. 그의 형제들보다: 이 글에서 ‘형제들보다’로 번역한 히브리 어구 ‘메에하브’(מֵעֵהָבִים)를 『개역개정』은 ‘형제보다’로, 『새번역』은 ‘그의 가족들 중에서’로, 『공동개정』은 ‘일가 가운데서’로 옮기고 있다. 먼저 우리말 ‘형제’에 해당하는 히브리 낱말 ‘아흐’(אָח)는 말 그대로 형제, 더 나아가 같은 겨레의 구성원을 가리킬 수 있다.⁷⁾

ㄴ. 존경 받았다: ‘존경 받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동사는 ‘카베드’(כָּבַד)의 단순재귀형(니팔)의 분사 형태로, ‘카베드’가 ‘무겁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겁게 되다’ 또는 ‘스스로를 무겁게 하다, 또는 그렇게 된 사람을 가리킨다. 『개역개정』은 ‘귀중한 자라, 『새번역』은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공동개정』은 ‘가장 세력있는 사람이었’으로 옮긴다. ‘카베드’의 니팔 형태는 이러한 세 가지 뜻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셋 가운데 어느 하나도 무방하지만, 이 글에서는 가장

7) H. Ringgren, “אָח,” *TDOT* I, 188-193.

일반적인 뜻을 지니고 있는 ‘존경 받다’로 옮기도록 한다. 아베츠의 어머니와 아베츠가 당한 고통이 어떠한 차원의 고통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베츠를 ‘세력있는 사람’으로 옮길 경우, 아베츠가 당한 고통을 단순히 힘과 권력의 차원으로 잘못 규정할 수 있고,⁸⁾ 아베츠가 얻은 복을 부나 물질, 또는 권력의 차원에서만 이해할 위험도 있다.⁹⁾

ㄷ. 부르다: 9절과 10절에서 두 번에 걸쳐 나오는 ‘부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동사 ‘카라’(קָרָא)는 자구적으로 ‘아무개를 부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명사 ‘이름’(שֵׁם)을 목적어로 가질 때에는 ‘이름 짓다’라는 뜻을 지닌다(창 1:5; 2:20; 3:20).¹⁰⁾ 따라서 이 글에서 옮긴 ‘그의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아베츠로 부르며 말했다.’는 ‘그의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아베츠로 지으며 말했다.’로 더 자연스럽게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카라 웨모’(קָרָא הָאֵם)를 ‘그의 이름을 짓다’로 옮기지 않고, 굳이 ‘그의 이름을 부르다’로 옮긴 것은 ‘카라’가 아베츠의 기도에서 이중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곧 본문에는 사람이 누군가를 부르는 행위가 두 번 나타나는데, 먼저 9절에서 아베츠의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하면, 10절에서 아베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לְאֵלֵינוּ אֱרֹאָהוּ, 동사 ‘카라’가 전치사 ‘르’를 가질 때에는 부르는 주어와 주어의 목적어 사이의 관계를 강조한다.¹¹⁾ 아베츠의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는 행위는 이름을 짓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아베츠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기도하다’ 또는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진다(창 4:26).¹²⁾

8) 이종록, “아베츠(역대상 4:9-10),” 『성경연구』 5 (1999), 40도 이러한 입장을 견지한다.

9) 임태수, 『역대상』,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12(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132는 아베츠가 얻은 복은 경제, 사회, 정신, 영혼의 모든 영역에서의 복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F. L. Hossfeld and E.-M. Kindl, “קָרָא,” *TDOT* XIII, 126-127.

11) F. L. Hossfeld and E.-M. Kindl, “קָרָא,” 111.

12) E. Gerstenberger, “לָלַב,” *TDOT* XI, 571, 573.

르.르. 참으로 내가 고통스럽게 낳았다. 이 문장은 아베츠의 어머니가 독백한 내용에 해당한다. 히브리 낱말 ‘키(כִּי)’의 용법에 따라 이 문장을 ‘내가 고통스럽게 낳았기 때문이다.’ 또는 단지 동사 ‘말하다(לְדַבֵּר)’의 목적절로 ‘내가 고통스럽게 낳았다.’로 옮길 수도 있다. 접속사 ‘키는’ 목적절이나 원인절을 이끌거나, 또는 부사로 ‘참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¹³⁾ 이 글에서는 ‘참으로’를 선택하는데, 그 이유는 10절에서 ‘부르며 말했다’는 동사 다음에 나타나는 ‘만일’을 뜻하는 접속사 ‘임(אִם)’과 위치의 측면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학적 상응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이다.

口. 고통: ‘고통’에 해당하는 히브리 낱말은 ‘오체브(עֲצֵב)’로, ‘아베츠(עֲבָרָה)’와 말놀이를 이룬다.¹⁴⁾ 아베츠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며, ‘참으로 내가 고통스럽게 낳았다.’고 말하며, 이름을 아베츠라고 짓는데, 사실상 아베츠는 오체브에서 히브리 알파벳 ‘차데(צ)’와 ‘베트(ב)’의 자리를 바꾼 것으로, 의미상의 상관관계는 없다. 다만 아베츠의 어머니가 사실상 아베츠에게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기 위해 자음을 바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¹⁵⁾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9절에서 고통을 뜻하는 명사 ‘오체브’의 동사형 ‘아차브(עֲצַב)’가 10절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개역개정』은 각각 명사형과 동사형을 ‘수고’와 ‘근심’으로, 『새번역』은 둘 다 ‘고통’으로, 『공동개정』은 각각 ‘고생’과 ‘어려운 일’로 번역하고 있는데,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은 이러한 히브리 낱말의 파생 관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ㅂ. 만일: ‘만일(אִם)’은 가정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구약의 기도문에

13) HALOT II, 470-471.

14) P. B. Dirksen, *1 Chronicles*, trans., Anthony P. Runia,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Leuven - Dudley, MA: Peeters, 2005), 70.

15) S. Japhet, *I & II Chronicles*, OTL (Louisville - London: SCM Press, 1993), 110; 목회와신학 편집부 엮음, 『역대상: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How 주석 시리즈 12(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13), 160; 임태수, 『역대상』, 131.

서 맹세나 서약의 용법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개역개정』, 『새번역』, 또한 『공동개정』은 모두 아베츠의 기도를 ‘없게 하옵소서.’,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번역하여 마치 아베츠가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이해하게 하지만, 히브리 원문은 ‘만일’이라는 접속사가 가정절을 이끌 뿐, 자신이 하는 서약이나 맹세를 하나님께 들어달라는 요구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서약을 위한 가정절은 나타나지만(*protasis*), 그에 대한 귀결절(*apodosis*)은 나타나지 않는다.¹⁶⁾ 이것은 아베츠가 드린 기도가 복을 간구하는 차원을 넘어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1.2. 본문의 흐름과 짜임새

아베츠의 기도를 담고 있는 역대상의 짜임새는 비교적 단순하다. 1-9장은 이스라엘을 이루는 지파들의 족보를, 10장은 사울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11-29장은 다윗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다.¹⁷⁾ 그런데 역대상이 전하는 족보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로 남유다를 이루거나 종교 계층을 형성한 유다, 레위, 베냐민 세 지파의 족보를 길고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반대로 단과 스블론 지파의 족보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일부 학자들은 유다, 레위, 베냐민의 세 지파의 중요성을 등가의 가치로 이해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학자들은 역대상 1-9장을 교차대구로 파악하여 그 중심에 위치한 레위 지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¹⁸⁾

16) P. B. Dirksen, *1 Chronicles*, 70; J. M. Myers, *1 Chronicles*, AB 12 (New York: Doubleday, 1965), 28; S. Japhet, *I & II Chronicles*, 110.

17) 자세한 짜임새를 위해서는 민경진, “역대기, 오해와 이해,” 「부산장신논총」 10 (2010), 3-8을 보라.

18) 역대기의 족보가 가진 짜임새, 기능, 형식을 위해서는 김영진, “역대기 사가의 역사 기술방식,” 「신학논단」 43 (2006), 19-23; 최중진, “역대기 족보의 유형과

범위를 더 좁혀 볼 때, 아베츠의 기도(대상 4:9-10)는 유다 지파의 족보(2:3-4:23) 안에 위치한다. 클레인(Klein)과 마비(Mabie)는 아베츠에 대한 언급이 앞뒤의 족보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에,¹⁹⁾ 야벳(Japhet)은 아베츠라는 지명을 언급하는 역대상 2장 55절에 비추어 볼 때, 역대상의 저자는 불확실한 아베츠의 기원을 유다 지파의 에브랏과 관련시켜 이해한다. 야벳은 본래 아베츠의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었을 텐데, 많은 분량의 본문이 삭제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²⁰⁾ 이러한 흐름 안에 들어 있는 아베츠의 기도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매우 정교하게 짜여 있다.

- A 9 아베츠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 받았다.
- B 그의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아베츠로 부르며 말했다.
- C “참으로 내가 고통스럽게 낳았다.”
- B’ 10 아베츠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말했다.
- C’ “만일 당신이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저의 지경을 넓히시고, 당신의 손이 저와 함께 있으며, 악에서 제가 고통당하지 않게 하신다면.”
- A’ 하나님이 아베츠가 구한 것을 이루어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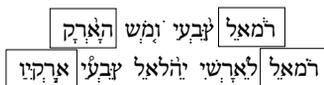
본문에는 하나님, 아베츠, 아베츠의 어머니라는 세 주요 등장인물이 나타난다. 역대기 역사가는 A 부분에서 아베츠가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 받았다고 말하고, A’에서는 하나님이 아베츠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들어 주셨다고 말한다.

기록 양식,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5 (2008), 35-48; 민경진, “역대기, 오해와 이해,” 3-4; 소형근, “포로후기 유다 공동체에서 역대기 족보가 지니는 의미, 「구약논단」 38(2010), 64-68; 황선우, “역대상 3:17-24에 기록된 여고냐(여호야긴) 후손의 세대(generation) 수, 「신학지남」 316 (2013), 9-25를 보라.

19) R. W. Klein, *1 Chronicles*, 132; D. J. Mabie, "1 and 2 Chronicles," T. Longman III & D. E. Garland ed.,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0(Grand Rapids: Zondervan, 2006-2010), 61.

20) S. Japhet, *I & II Chronicles*, 109.

이러한 A와 A' 사이에 아베츠의 어머니와 아베츠가 등장하는데, B와 B'에는 '부르며 말하다'라는 동사구가, C와 C'에는 '고통'이라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명사와 동사가 서로에게 상응하는 위치에 등장함으로써 아베츠의 어머니와 아베츠를 다음과 같이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



B에서 아베츠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짓는 반면, B'에서 아베츠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C에서 아베츠의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아베츠로 지은 근거를 대는 반면, C'에서 아베츠는 하나님께 일종의 서원의 기도를 드린다. 어머니는 아들을 낳으며 고통(בְּצָעַב, בְּצָעַע)스러웠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고통과 관련시켜 짓지만, 아베츠는 자신의 삶에 주어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 받는다.

이는 마치 라헬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בְּנוֹנִי)' 곧 '슬픔의 아들'로 짓지만, 아버지가 '오른손의 아들' 곧 '베냐민(בְּנֵימִן)'이라고 개명하는 것과 비슷하다(창 35:18).

이처럼 A와 A' 사이에 B-C-B'-C'의 병행 구조가 짜임새 있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A와 A'는 이러한 B와 C를 감싸는 머리말과 맺음말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곧 아베츠가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아베츠의 기도를 들어 주셨기 때문으로 볼 수 있도록 본문은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다. A의 '존경 받았다'가 수동의 의미를 가진 재귀태에 해당한다면, A'에서 '이루어주셨다'는 동사는 사역능동형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베츠가 존귀하게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능동적인 은총으로 가능한 것임을 보여준다.²¹⁾

21) 이종록, “아베츠(역대상 4:9-10),” 55.

2. 역대기의 기도 신학에 따른 아베츠의 기도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따르면, 역대상 4장 9-10절은 앞뒤 본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아 본문의 흐름을 끊는 것처럼 보이며, 아베츠라는 인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은 아베츠의 기도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본문이 속한 문맥과 상관없이 확대하여 발전시키는 데에는 문제와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아베츠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부분이 전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²²⁾ 만일 독자들이 본문의 짜임새에 충실하게 본문을 읽고, 본문이 속한 단락과 책 안에서 본문을 조망하여 읽는다면, 이전의 주석가들이 이루어낸 본문 이해에 덧붙여 더 깊은 이해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아래에서는 아베츠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그의 이름의 기원을 통해 추정해보고, 아베츠가 드린 기도를 역대기의 기도 신학에 비추어 이해하며, 마지막으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아베츠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하고 포로의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본문에서 어떠한 신앙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2.1. 아베츠

아베츠가 드린 기도가 많이 알려진 것에 비해, 그 기도를 드린 아베츠라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는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단지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 아마도 아베츠가 유다 지파에 속한

22)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부분과 전체』, 김용준 역 (서울: 지식산업사, 2005).

사람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²³⁾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아베츠의 경우에 특이한 점은 아베츠라고 이름을 지은 사람은 아베츠의 어머니라는 사실이다.²⁴⁾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문장에서 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하고, 행위의 주체를 강조할 경우에 동사 앞에 주어를 놓는데, 역대상 4장 9절의 경우에 동사 앞에 주어를 놓음으로써, 아베츠의 이름을 지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본문은 아베츠의 아버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데, 바버(Barber)는 아베츠의 아버지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을 것으로 상상하지만, 본문에는 그 근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 그는 아베츠가 다른 형제들보다 존경 받게 되었다는 것을 차자가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구약의 여러 이야기에서처럼 아베츠가 막내였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또한 확실하지 않다.²⁵⁾ 이처럼 여러 상상이 가능한 것은 그만큼 아베츠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문은 기도의 사람 아베츠를 낳을 때의 어머니가 당한 고통을 언급한다. 이러한 점에서 아마도 역대기 역사가는 아베츠의 어머니의 믿음이 홀통했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믿음에 비견되는 점에서 그러하다(삼상 1). 한나 역시 엘가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엘가나의 다른 아내 브닌나에게 모욕을 당하고 제사장 엘리에게 술 취했다는 오해도 받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영웅 사무엘을 낳게 된다. 또한 아베츠와 아베츠의 어머니는 삼손과 삼손의 어머니에 비교할 수 있다. 한나의 기도문(삼상 2:1-10)이 마리아의 찬가(눅 1:46-56)에 상응할 정도로 이름난 여인의 기도에 해당한다면, 삼손의 어머니는 아베츠의 어머니와

23) R. W. Klein, *1 Chronicles*, 132는 이에 반대한다.

24) R. W. Klein, *1 Chronicles*, 132는 역대기에서 대상 4:9-10 외에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는 유일한 경우는 대상 7:16에 나타나는 베레스의 어머니인 마아가 뿐이라고 지적한다. 참고로 역대기 이외에 창 29:35는 레아 역시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것으로 보게 하며, 창 30:6 또한 라헬이 자식들의 이름을 지은 것으로 읽게 한다.

25) C. J. Barber, *1 Chronicles* (Ross-shire: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2000), 23.

마찬가지로 이름 없는 여성에 불과했기 때문이다(삿 13장). 성경에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에스라와 느헤미야 등 저명한 인물들의 기도가 나타난다.²⁶⁾ 그러나 이와 함께 아베츠처럼 출신을 알기 힘든 무명의 인물이 행한 기도도 나타난다. 또한 성경에는 출애굽의 영웅 모세,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과 같은 믿음의 영웅도 나타나지만, 느헤미야 3장에는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며 문짝을 만들고 문짝을 다는 일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의 신앙의 영웅, 천재들이 일구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베츠와 같이 자신의 삶의 운명에 드리워진 고통을 이겨내도록 치열하게 기도한 사람들에게 의해 이룩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가르쳐준다.²⁷⁾

그렇다면 도대체 무명의 인물인 아베츠가 어떠한 기도를 드렸기에, 그의 기도가 다른 그 누구의 기도보다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대중적인 기도가 되었는가? 또한 아베츠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가?

2.2. 기도의 형식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다. 이러한 면에서 기도에는 단지 일반인들이 생각하듯이 간구나 간청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은 채, 자기의 요구 사항을 아뢰는 것은 일방적

26)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창 18),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세의 기도(민 11),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기도(시 72), 성전을 위한 솔로몬의 기도(왕상 8) 등.

27) 이종록, “아베츠(역대상 4:9-10),” 56은 아베츠가 이러한 훌륭한 신앙을 얻기까지 수많은 기도를 드렸을 것으로 추정한다. 동시에 아베츠가 이러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룬 것으로 보아 대략 50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본문은 아베츠의 나이에 대해서 암시하지 않는다.

인 독백에 불과하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은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개방하는 것이다.²⁸⁾ 이러한 점에서 ‘기도(祈禱)’를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뵈. 또는 그런 의식’으로 정의하고, ‘기도하다’에 해당하는 우리말 ‘빌다’를 ‘바라는 바를 이루게 하여 달라고 신이나 사람, 사물 따위에 간청하다.’²⁹⁾로 규정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한 차원만을 표현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대인의 기도는 팔레스타인 주변의 많은 문화에서처럼 물질의 소유나 보상을 위한 간구나 특별한 행위나 말에 의해 지배될 수 있는 신에 대한 신비한 조정이 아니었다.’고 말한 찰즈워스(Charlesworth)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³⁰⁾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말 성경은 야베츠의 기도를 ‘하옵소서.’(『개역개정』), ‘주십시오.’(『새번역』), ‘도와주십시오.’(『공동개정』)라고 그의 기도의 말미를 번역함으로써, 마치 야베츠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야베츠의 기도는 단순한 차원에서의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귀결절이 생략된 형태의 서약의 기도로서, 야베츠는 자신이 드린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다.³¹⁾

이러한 점에서 야베츠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자신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요구해서, 그의 삶에서 환란과 근심이 없게 되었다고 야베츠의 기도를 기복적인 기도로 이해하는 것은 그의 기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클레인은 역대기에서 인과응보 사상을 처음으로 언급한 곳이 야베츠의 기도 본문이라고 주장하고,³²⁾ 최종진 역시

28) 칼 바르트, 『복음주의 신학입문』,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5), 168-169.

29)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기도’와 ‘빌다’ 항목을 보라.

30) J. H. Charlesworth, "Prayer in Early Judaism," *ABD* 5, 449.

31) 이종록, “야베츠(역대상 4:9-10),” 50-51; J. M. Myers, *1 Chronicles*, 28-29를 보라.

32) R. W. Klein, *1 Chronicles*, 133.

“아베츠의 기도(대상 4:10) 속에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깊이 스며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³³⁾고 주장하는데, 어떠한 점에서 아베츠의 기도 안에 인과응보의 사상이 들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들은 아마도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신학 경향에 비추어,³⁴⁾ 아베츠의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베츠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아베츠가 기도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기도하면 기계적으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신다. 따라서 때로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렘 7:16 등). 아베츠의 행위와 그가 받게 된 복 사이에는 기계적인 인과 관계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기도가 일종의 공로 행위로 여겨지면 안 된다.³⁵⁾

이와 달리 아베츠는 ‘하나님이 만일 무엇 하시면’이라고 하는 ‘만일의 기도’만을 드리고 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신다면, 자기 또한 무엇을 하겠다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아베츠는 단지 ‘만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뿐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 이러한 아베츠의 기도 또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드린 기도와 유사하다. 아베츠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에 나온 접속사는 모두 ‘임’으로, 이들은 모두 자신의 주도성을 포기한 ‘만일’의 기도를 드린다. 하지만 아베츠의 기도가 한나가 기도한 것보다 더 자신의 의지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만일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반면에(삼상 1:11), 아베츠의 기도에는 일반적으로 서원 기도에 나오는 귀결절마저 나타나지 않는 점에

33) 최종진, "역대기 저자의 신학," 『구약논단』 27 (2008), 154.

34) R. W. Klein, *1 Chronicles*, xxxvii-xxxix.

35) 이러한 점에서 이제민, 『제3의 인생』 (서울: 바오로딸, 2005)의 부제는 ‘수동의 영성’인데, 이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그는 6-7쪽에서 ‘사랑하다’, ‘기도하다’ 등의 행위 ‘하다’를 강조하는 영성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서 그러하다. 아베츠는 단지 하나님께 간구할 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어떠한 결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높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역대기 역사가가 족보의 흐름 가운데 아베츠의 기도를 삽입한 이유는 무엇인가? 독자들은 이러한 이유를 역대기의 신학의 특징 아래에서 이해해야 한다.³⁶⁾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귀환 공동체의 입장을 반영한다. 역대기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하며, 과거를 반성하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빠지게 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섬겼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해방되어 제2의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 제의 공동체가 되어야 했다.³⁷⁾ 이러한 면에서 역대기 사가는 성전 제의를 준비한 다윗,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평가한다.³⁸⁾ 신명기 역사서에 단 3번(삼상 6:15; 삼하 15:24; 왕상 8:4) 나오는 ‘레위’라는 낱말은 역대기 역사서에서는 100번 나타나며, 이들은 이스라엘의 제의를 책임질 지도자들로 나타난다. 따라서 성전, 제의, 또한 이들 안에서 행하는 설교와 기도야말로 역대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어라 말할 수 있다.³⁹⁾ 역대기에는 신명기 역사서에 없는 여러 기도가 나타나는 것도 역대기가 이처럼 기도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반영한다.⁴⁰⁾ 역대기 사가는 자기가 이어 받은 예언자의 전승과 레위

36) 역대기의 신학을 위해서는 J. M. Myers, *1 Chronicles*, LXIV-LXXV.

37) 포로로 끌려감과 해방이 신학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주장을 위해서는 왕대일, “해방과 추방, 구약 신학적 검토,” 『Canon&Culture』 17(2015), 5-34를 보라.

38) 김지은, “포로 공동체와 역대기서에 나타난 솔로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8(2003), 27-48; 박철우, “역대기의 이상적 정체 및 이상왕에 관한 고찰,” 『신학사상』 76(1992), 5-36; 임태수, “역대기의 다윗상,” 『신학사상』 49(1985), 239-279; Simon J. De Vries, “역대기에 나타난 제의 창시자 모세와 다윗,” 임현준 역, 『신학사상』 85(1994), 119-144.

39) R. Braun, *1 Chronicles*, WBC 14 (Waco, Texas: Word Books, 1986), 58; P. B. Dirksen, *1 Chronicles*, 70.

사람들의 전승을 적절하게 조율하여 설교와 기도로 승화시킨다.⁴¹⁾

이러한 역대기의 특징에서 볼 때, 비록 아베츠의 기도가 역대상 1-9장의 족보의 단락 가운데 나타나 족보의 흐름을 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대기의 저자가 아베츠의 기도를 족보 가운데 위치시킨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의미심장하다. 구약의 족보는 단지 어떠한 사람이나 공동체의 기원을 설명하고, 그 구성원의 한계를 알려주려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의 불행 가운데 영구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신앙을 표현하는 기능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⁴²⁾ 또한 역대기의 족보는 단순히 부자 관계의 가계도만을 나열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그들의 삶에 대한 해설이나 짧은 이야기를 삽입하는 것으로 보아,⁴³⁾ 족보 가운데 나타나는 아베츠의 이야기가 반드시 역대기 족보의 흐름을 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역대기의 족보 안에 기도가 삽입되어 있는 점은 족보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 이러한 야웨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신앙을 전제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 족보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은 그들의 구체적인 삶을 침묵으로 표현한다.

2.3. 아베츠와 포로기 이스라엘

그렇다면 아베츠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 특히 포로기 이후의

40) J. M. Myers, *1 Chronicles*, LXVI. 제2성전기의 유대교에서 기도의 여러 양식을 위해서는 J. Penner, *Patterns of Daily Prayer in Second Temple Period Judaism*, STDJ 104(Leiden - Boston: Brill, 2002)를 참조하라.

41) G. von Rad, "The Levitical Sermon in I and II Chronicles,"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trans., E. W. Trueman Dicken (Edinburgh - London: Oliver and Boyd, 1966), 272-278.

42) 족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신학을 위해서는 D. M. Johnson, *The Purpose of the Biblical Genealog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etting of the Genealogies of Jesus*, MSSNTS 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을 보라.

43) 이종록, "아베츠(역대상 4:9-10)," 32-33.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이해되었고, 그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야베츠는 지명(대상 2:55)임과 동시에 인명(4:9, 10)이기도 하다.⁴⁴⁾ 이 말은 곧 야베츠라는 인물은 분명히 땅에 대한 관심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⁴⁵⁾ 야베츠의 어머니가 고통스럽게 야베츠를 낳았고, 야베츠는 자신의 땅의 경계를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자기를 보호해 주며, 자신의 고통을 없애달라고 한 것은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모습과 운명을 투영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⁴⁶⁾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통의 역사, 그야말로 야베츠의 역사이다. 땅을 잃었고, 전쟁을 통하여 포로지로 끌려갔고, 이방 민족에게 멸시 받았으며, 복이 아닌 저주를 받는 것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들이 겪는 문제는 단지 정치,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에 대한 신앙의 문제였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백성은 자신들이 믿던 야웨가 아닌, 바벨론의 마르둑이 진짜 신이 아닌가 반문했을 것이다.

고통스럽게 출생했으나, 하나님께 간구하여 응답을 들은 야베츠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향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된다. 야베츠는 단지 사사 시대의 어느 개인을 지칭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전개되는 역사에서 공동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야베츠가 드린 기도를 단지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으로 제한시킨 월킨슨의 이해는 극복해야 한다.⁴⁷⁾ 이러한 해석은 야베츠의 기도를 자칫 잘못하면 무조건적인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는 번영신학(Prosperity

44) Y. Kobayashi, "Jabez(Place)," *ABD* 3, 595; H. C. Lo, "Jabez(Person)," *ABD* 3, 595.

45) S. S. Tuell, 『역대상하: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 배희숙 역, 현대성서주석 11(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57.

46) R. Pratt, *1 & 2 Chronicles*, A Mentor Commentary(Ross-shire: Mentor, 1998), 100; R. W. Klein, *1 Chronicles*, 132; J. Goldingay, *1 and 2 Chronicles for Everyone*(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2), 13은 야베츠의 기도를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역사의 배경에서 읽는다.

47) 앞의 각주 4를 보라.

Theology)의 해석 방식으로 이끌 위험도 가지고 있다.⁴⁸⁾ 물론 역대상 4장 10절의 아베츠의 기도에서 ‘나라는 1인칭 단수 대명접미사가 4번 나타나 아베츠 개인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이다. 젤린(Sellin)과 포러(Fohrer) 역시 역대기 사가는 인과응보의 교리를 민족 전체보다는 개인에게 더 적용한다는 폰 라트(von Rad)의 입장에 동의한다.⁴⁹⁾

그러나 역대기에는 개인과 공동체가 긴밀하게 융합되어 있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땅의 확대를 기도하는 차원에서 신명 ‘엘로힘’(אֱלֹהִים)이 역대기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하나님의 보편성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본문에서 ‘엘로힘’은, ‘야웨’가 이스라엘을 해방한 민족신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우주적이고 국제적인 차원의 신을 가리키며,⁵⁰⁾ 이러한 관점에서 아베츠는 단지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닌, 확대되고 종말론적으로 이해된 이스라엘을 대표한다.⁵¹⁾ 이것 역시 아베츠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족보 안에 삽입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역대상 1-9장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기원을 온 인류의 기원인 아담으로까지 소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역대기의 족보에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배타성과 그 이스라엘 조차 아담의 후손이라는 인류 전체의 보편성이 공존한다. 역대기가 신명기 역사서에 비하여 ‘온 이스라엘’ 사상을 강조하는 것도 역대기의 보편성을 나타낸다.⁵²⁾

일반적으로 원인론(etiology)은 이미 주어진 이름이나 지명을 설명하

48) 변영신학의 개념과 문제점을 위해서는 류장현, “변영신학에 대한 신학적 비판,” 『신학논단』 61(2010), 7-30을 보라.

49) E. 젤린, G. 포러, 『구약성서개론』, 김이곤, 문희석, 민영진 역편(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293.

50) W. Johnstone, *1 and 2 Chronicles, vol. 1, 1 Chronicles 1-2 Chronicles 9, Israel's Place among the Nations*, JSOTSS 253 (Sheffield: JSOT, 1997), 61.

51) R. W. Klein, *1 Chronicles*, 133.

52) 게오르크 슈타인스, “역대기,” 에리히 쟈어 편, 『구약성경 개론』, 이종한 옮김(왜관: 분도출판사, 2012), 455.

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아베츠의 경우에는 아베츠가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극복한 경우에 해당한다.⁵³⁾ 포로지에서, 또는 포로지에서 고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베츠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로 드렸을 것이며,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은총의 표지로 작용하는 족보에 삽입함으로써, 이스라엘 지파의 속한 모든 사람들이 마치 아베츠처럼 고통을 이겨낸 승리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후대에 조상들의 족보를 읽는 사람들도 아베츠처럼 고통 속에서 만일의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한다.

나가는 말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기도 가운데, 아베츠의 기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기도이다. 고통 가운데 태어난 아베츠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삶에 드리워진 고통의 운명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영웅적 신앙인의 삶의 궤적을 상상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신의 지경을 넓혀 달라는 아베츠가 드린 기도는 때로는 통속적인 방식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들어 주신다는 기계적인 하나님(*deus ex machina*)의 이미지를 낳게 되기도 한다. 아베츠의 기도를 이 기도가 기록된 구체적 역사의 배경,⁵⁴⁾ 곧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역사를 외면한 채 곧바로 오늘날 상황에 적용할 때, 본문이 본래적으로 목적인 의도를 떠나 추상적이고 사변적이며, 때로는

53) S. Japhet, *I & II Chronicles*, 109.

54) 주전 6세기 말부터 주전 2세기까지 역대기의 저작연대에 대한 논쟁을 위해서는 황선우, “역대상 3:17-24에 기록된 여고냐(여호야긴) 후손의 세대(*generation*) 수,” 9-25를 보라.

신비적인 해석의 결과를 낳을 위험을 낳는다.

땅의 한계를 확대시켜 달라는 기도는 땅을 잃은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기도는 자신의 영역과 영향력을 확대시켜 달라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요, 자신의 생존의 터전을 달라는 처절한 기도로 비로소 읽을 수 있다. 자신의 고통을 없애 달라는 기도는 단순히 영혼과 육체의 평안함을 달라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굴곡진 역사 가운데 땅 위에 구현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는 공동체의 절규어린 기도로 다시 읽을 수 있다. 야베츠는 역대상의 족보 가운데 뜬금없이 나타나 영웅적인 기도를 드린 신비롭고 입지전적인 인물이 아니다. 야베츠는 오늘날 고통과 억압의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작은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이요, 야베츠를 낳은 어머니는 오늘날 개인과 사회와 역사의 차원에서 여러 이유로 애태우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이 땅의 어머니이다.

<주요어>

야베츠, 역대기 역사, 제의, 기도,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Keywords>

Jabez, Chronicler's History, Cult, Prayer, Exilic and Postexilic Israel

* 접수일 2015년 8월 30일, 수정일 2015년 9월 13일, 게재 확정일 2015년 9월 23일

참고문헌

- 게오르크 슈타인스, “역대기,” 에리히 쟈어 편, 『구약성경 개론』, 이중한 역 (왜관: 분도출판사, 2012), 433-456.
- 곽성희, “현대 번역학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고찰,” 『성경원문연구』 24 (2009), 157-179.
- 김영진, “역대기 사가의 역사 기술방식,” 『신학논단』 43 (2006), 7-32.
- 류장현, “번역신학에 대한 신학적 비판,” 『신학논단』 61 (2010), 7-30.
- 목회와신학 편집부 엮음, 『역대상: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두란노 How 주석 시리즈 12,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13.
- 민경진, “역대기, 오해와 이해,” 『부산장신논총』 10 (2010), 1-30.
-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부분과 전체』, 김용준 역, 서울: 지식산업사, 2005.
- 브루스 윌킨슨, 『아베스의 기도: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마영례 역, 서울: 디모데, 2001.
- 소형근, “포로후기 유다 공동체에서 역대기 족보가 지니는 의미,” 『구약논단』 38 (2010), 54-70.
- 송삼용, 『아베스의 영성』, 서울: 브니엘, 2008.
- 왕대일, “번역 속의 주석, 그 가능성과 한계 -내용 동등성 번역의 경우-,” 『성경원문연구』 16 (2005), 62-78.
- 왕대일, “해방과 추방, 구약 신학적 검토,” 『Canon&Culture』 17 (2015), 5-34.
- 이제민, 『제3의 인생』, 서울: 바오로딸, 2005.
- 이종록, “아베스(역대상 4:9-10),” 『성경연구』 5 (1999), 30-59.
- 임태수, 『역대상』, 대한기독교서회 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주석 12,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정대웅, 『아베스 가족의 비밀』, 서울: 쿤란, 2007.
- 젤린, E., 포러, G., 『구약성서개론』, 김이곤, 문희석, 민영진 역편,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 찰스 스펠전, 『아베스의 기도』, 유재덕 옮김, 서울: 브니엘, 2009.
- 최종진, “역대기 저자의 신학,” 『구약논단』 27 (2008), 138-158.

- 칼 바르트, 『복음주의 신학입문』, 이형기 엮,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6.
- 스티븐 S. 투엘, 『역대상 하: 목회자와 설교자를 위한 주석』, 현대성서주석 11, 배희숙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7.
- 해럴드 스미스, 『아베츠의 축복원리: 당신은 거룩한 축복을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 황선우, "역대상 3:17-24에 기록된 여고냐(여호야긴) 후손의 세대 (generation) 수," 「신학지남」 316 (2013), 9-25.
- Barber, C. J., *1 Chronicles*, Ross-shire: Christian Focus Publications, 2000.
- Braun, R., *1 Chronicles*, WBC 14, Waco, Texas: Word Books, 1986.
- Charlesworth, J. H., "Prayer in Early Judaism," *ABD* 5, 449-450.
- Dirksen, P. B., *1 Chronicles*, trans., Anthony P. Runia,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Leuven - Dudley, MA: Peeters, 2005.
- Gerstenberger, E., "יָבֶז," *TDOT* XI, 567-577.
- Goldingay, J., *1 and 2 Chronicles for Everyon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2.
- Hossfeld F. L., and Kindl, E.-M., "יָבֶז," *TDOT* XIII, 126-131.
- Japhet, S., *I & II Chronicles*, OTL, Louisville - London: SCM Press, 1993.
- Johnson, D. M., *The Purpose of the Biblical Genealog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etting of the Genealogies of Jesus*, MSSNTS 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Johnstone, W., *1 and 2 Chronicles, vol. 1, 1 Chronicles 1-2 Chronicles 9 Israel's Place among the Nations*, JSOTSS 253, Sheffield: JSOT, 1997.
- Klein, R. W., *1 Chronicles: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6.
- Kobayashi, Y., "Jabez(Place)," *ABD* 3, 595.
- Lo, H. C., "Jabez(Person)," *ABD* 3, 595.
- Mabie, D. J., *1 and 2 Chronicles*, Longman III T., & Garland, D. E., ed.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10, Grand Rapids: Zondervan, 2006-2010.
- Myers, J. M., *1 Chronicles*, AB 12, New York: Doubleday, 1965.

- Nida E. A., and Taber, Ch. 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Help for Translators 8, Leiden: Brill, 1982.
- Penner, J., *Patterns of Daily Prayer in Second Temple Judaism*, STDJ 104. Leiden - Boston: Brill, 2002.
- Pratt, R., *1 & 2 Chronicles*, A Mentor Commentary, Ross-shire: Mentor, 1998.
- Ringgren, H., "אָפּ," *TDOT* I, 188-193.
- von Rad, G., "The Levitical Sermon in I and II Chronicles," *The Problem of the Hexateuch and other Essays*, trans. E. W. Trueman Dicken, Edinburgh - London: Oliver and Boyd, 1966, 267-280.

<초록>

아베츠의 기도 재고(再考)

김선종

(호남신학대학교, 구약학)

역대상 4장 9-10절에 나오는 아베츠의 기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진 기도이다. 아베츠의 어머니는 고통스럽게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아베츠(고통)라고 짓는다. 아베츠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의 운명을 기도로 극복한다. 그가 드린 기도는 ‘만일의 기도’라고 부를 수 있는데, ‘만일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시면, 땅의 경계를 확대해 주시면, 그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면’이라고 하는 가정절로 이루어져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아베츠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주시면 무엇을 하겠다는 서약도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주셔야 한다는 간구도 없다. 그저 아베츠는 ‘만일’이라고 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기도의 결과는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

많은 사람들이 아베츠가 드린 기도를 가장 효과적이고 훌륭한 기도로 이해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가르침을 주기도 한다. 일부 사람들은 아베츠가 구한 복을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적인 복으로 제한하여, 기도문에 나타나는 복의 의미를 협소화시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아베츠의 기도를 통속적으로 잘못 이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아베츠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기록된 역사의 상황 아래에서 이해해야 하고, 이 기도를 포함하는 역대기의 신학의 빛에서 읽어야 한다.

역대기 역사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국가를 세울 청사진을 제공한다. 새로운 나라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 정치 체제로서, 성전에서의 제사와 기도가 중심이 된 제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역대상은 처음 아홉 장에 걸쳐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할 백성들의 명단을 족보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족보를 통하여 자신들의 기원과 하나님의 은총을 표현한다. 야베츠의 기도는 이처럼 족보의 맥락에서 서술되고 있는데, 하나님께 복을 구하여 응답을 받은 야베츠는 이스라엘을 형성한 믿음의 조상들을 나타낸다.

역대기 역사서에 나오는 여러 기도 가운데 야베츠의 기도는 고통 속에서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의 단면을 보여준다. 야베츠의 기도를 역대기의 신학, 특별히 역대기의 기도 신학과 역대기 역사서가 기록된 포로기 이스라엘 역사에 비추어 읽을 때, 신비적이거나 사변적인 기도의 의미를 넘어,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힘과 위로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의 실례를 얻을 수 있다. 야베츠는 이스라엘 지파의 여러 족보 가운데 위치하고 있지만, 정작 그의 아버지의 이름조차 알려져 있지 않을 만큼, 그의 족보는 분명하지 않다. 야베츠는 그의 출신이 신비로운 신앙의 영웅이 아니라, 비록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기도로 자신의 운명을 극복한 포로기의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이요, 고난과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날의 작은 그리스도인들이다.

<Abstract>

A Reconsideration on the Prayer of Jabez

Prof. Sun-Jong Kim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The prayer of Jabez in 1 Chronicles 4:9-10 is well known to many Christians. His mother gave birth to him in pain, so she named her son Jabez, or “pain.” Although a painful fate was given to him, he overcame it through his prayer. His prayer could be called “the prayer of If” for it consists of the subjunctive mood as “if God bless me, if God enlarge the border of my territory, if God protect me with his hands, if God let me escape from this pain.” His prayer has neither a vow nor a plea that God has to respond. Jabez just entrusts the results of his prayer to the only sovereign God by praying “the prayer of If.”

Many people understand Jabez’s prayer as the most effective prayer, so they think that God always responds to the prayer when they pray eagerly. Some people circumscribe the blessing by noting that Jabez asked God for a personal and material blessing, and then they minimize the meaning of blessing shown in the prayer. However, this represents a popular misunderstanding of the prayer of Jabez. The prayer of Jabez should be properly understood in the historical context in which the text was written and read in the light of the Chronicler’s theology within which the prayer was conceived.

The Chronicler’s history offers a blueprint by which the Israelites construct a new nation after returning to their homeland from the Babylonian exile. The new nation is theocratic and is

a cultic community which centers on the prayer and sacrifice in the temple precinct. Hence, First Chronicles gives a list of the people who construct the new Israel as evident in the genealogy in 1 Chronicle 1-9 and expresses Israel's origin and God's grace through this genealogy. Jabez asks for God's blessing, and God responds to his prayer. Jabez represents the forefathers of faith who form Israel.

Thus, the prayer of Jabez, written in the Chronicler's history, shows among many prayers an important aspect of exilic and post-exilic Israelites who prayed eagerly for the restoration of Israel in pain. When we read the prayer of Jabez in the Chronicler's theology, particularly in the history of Israel in the exilic period when the theology of prayer was formed and the Chronicler's history was written, we can grasp an example of the prayers of Israel and the mysterious meaning of prayers. Jabez's genealogy remains unclear, since the name of his father is not known. Ultimately, Jabez is the hero of faith—an Israelite who was in pain but who overcomes his fate with his prayer and who gives hope to today's marginalized Christians who live in pain and under oppression.